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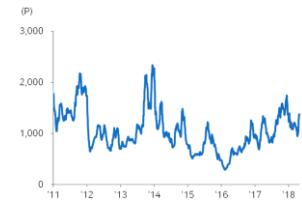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11.1	17.2	124,500	-2.0	-1.6	-4.2	29.8	86.8	41.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653.1	21.7	408,500	-0.4	1.1	-4.2	7.2	5.5	4.6	0.7	0.6	14.1	14.7
현대미心底	949.1	4.9	93,000	-2.2	22.5	-3.4	-18.4	8.8	7.7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88.8	8.6	171,000	-2.8	6.9	-11.2	1.2	10.9	8.0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4,857.3	17.9	7,710	-1.7	-6.2	-0.9	19.2	48.6	24.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717.7	4.5	25,350	-1.0	-6.8	23.1	82.4	9.3	11.2	0.8	0.8	9.0	6.8
현대미포조선	1,974.0	10.0	98,700	-2.3	5.1	-5.1	25.4	21.3	15.4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64.8	6.8	3,440	-2.7	9.4	-5.2	3.9	69.2	17.3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904.3	23.5	108,500	11.4	40.5	88.4	99.4	19.2	18.6	2.6	2.3	14.6	13.3
두산밥캣	3,213.0	26.7	32,050	0.8	3.2	-12.6	-10.5	11.7	11.1	0.9	0.9	7.4	7.6
현대로템	2,877.3	16.3	33,850	7.0	100.9	120.5	80.5	43.7	29.8	1.9	1.8	4.5	6.3
하이록코리아	362.1	49.2	26,600	0.4	10.8	3.3	18.2	12.0	11.0	1.0	1.0	8.8	9.0
성광밴드	357.5	17.0	12,500	2.5	8.7	-0.4	25.3	1,105.0	44.8	0.8	0.8	0.1	1.8
태광	367.0	12.8	13,850	1.1	14.5	1.1	14.9	82.7	40.4	0.9	0.8	1.0	2.1
두산중공업	1,969.6	11.5	18,500	-1.3	24.6	21.7	20.5	17.7	11.5	0.6	0.6	3.7	5.2
두산인프라코어	2,102.3	13.2	10,100	-1.0	17.6	-3.8	16.2	7.2	6.7	1.1	1.0	15.6	15.0
두산엔진	454.5	3.5	6,540	0.0	20.9	68.1	77.5	-90.5	98.8	0.8	0.8	-0.9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318.1	16.2	44,300	-1.8	-7.3	-3.8	-6.6	35.8	24.7	3.5	3.1	9.7	12.9
한화테크윈	1,528.0	13.5	29,050	5.1	5.1	2.8	-18.3	31.8	19.1	0.7	0.7	2.1	3.4
LIG넥스원	970.2	10.6	44,100	-1.5	-3.9	-14.2	-26.3	21.2	14.1	1.5	1.4	7.8	10.7
태웅	413.2	4.3	20,650	2.5	17.7	-2.8	6.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8.6	5.8	6,250	-1.9	-7.5	-24.7	23.8	-46.0	65.8	2.0	1.9	-4.3	3.1
한국카본	274.8	13.6	6,250	0.8	11.8	-10.6	16.6	55.6	30.7	0.8	0.8	1.6	2.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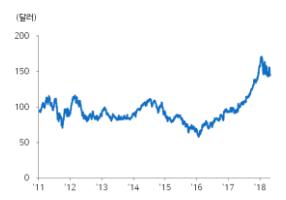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3 1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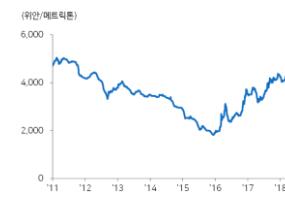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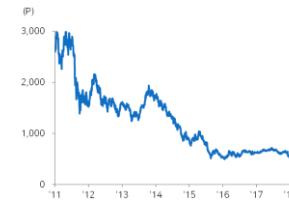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 Stock) +2.68 152.61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Fredriksen buys cancelled drillships for \$592m**

John Fredriksen의 Northern Drilling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 해지된 Drillship 2척을 총 5.92억달러에 매입했다고 알려짐. 해당 Drillship은 지난 3월 Seadrill에서 계약해지된 선박임. 매각가는 척당 2.96억달러로 최초 계약가는 5.55억달러임. 인도는 2021년 1월과 3월에 계획됨. 대우조선해양은 선수금 1.8억달러를 받고, 잔금은 인도시점에 받을 예정임.

이번 계약에 Northern이 보유한 옵션은 1) 조기인도, 2) 계약취소된 Drillship 1 척 추가인도가 있음. 해당 Drillship은 Vantage Drilling이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에 5.93억달러에 발주했다가 2015년 8월에 계약해지된 선박임. 옵션 행사를 통해 Northern은 해당 선박을 3.5억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Upstream)

New lending jumps at KfW IPEX-Bank

독일 선박금융기관 KfW IPEX Bank는 2018년 1분기 33억유로(39.1억달러)를 대출함. 1년전 대출규모는 21억달러로 약 57% 증가함. 특히 선박 부문에서 9억 유로를 차지하며, 전년동기 3억유로 대비 약 3배 증가함. 2017년 말 기준 KfW의 전체 대출자산은 619억유로로 알려짐. (TradeWinds)

Transocean makes move on new semisub rig

시추업체 Transocean은 싱가폴 Sembcorp Marine의 Jurong 조선소에 발주했던 Semi-sub 1기를 구매했다고 알려짐. 해당 시추장비는 Seadrill의 관계사 North Atlantic Drilling Ltd(NADL)이 6.5억달러에 발주했으나, 작년 말 이명의 업체에 5억달러에 재매각함. 해당 업체는 Transocean으로 알려짐. (Upstream)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2.7조원 규모 초대형 석유화학 신사업 추진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올레핀과 폴리올레핀을 생산하는 HPC사업 신설 투자합의서에 공동 서명함. 해당 사업규모는 2.7조원 수준으로, 양사는 기존 합작법인인 현대케미칼에 추가 출자해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내에 약 50만평 부지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짐. (조선비즈)

Yang Ming, 2만 teu급 발주 심사속고

대만선사 Yang Ming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만TEU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짐. Yang Ming은 구주항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소속된 The Alliance에서 나머지 업체가 모두 1.8TEU급 이상의 컨선을 6척씩 투입하고 있단 점에서 발주할 가능성성이 높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